

사랑의열매

ISSUE **153**
2020 JANUARY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작은 나눔으로 만드는 큰 변화

따뜻한 음식과 함께 새해 여는
스타 셰프 이연복



2020년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의열매 '희망2020나눔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전국에서 크고 작은 나눔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사리손으로 모은 저금통부터 이름 모를 가슴 따뜻한 이의 정성과 전국 각지에 전달되는 생필품 등 각 기업과 단체에서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에도 나눔이 가득한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의열매 공식 SNS

📷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 페이스북 @chestkorea 📝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aiaw0g



미리 크리스마스
사랑의열매에 동전도 쓱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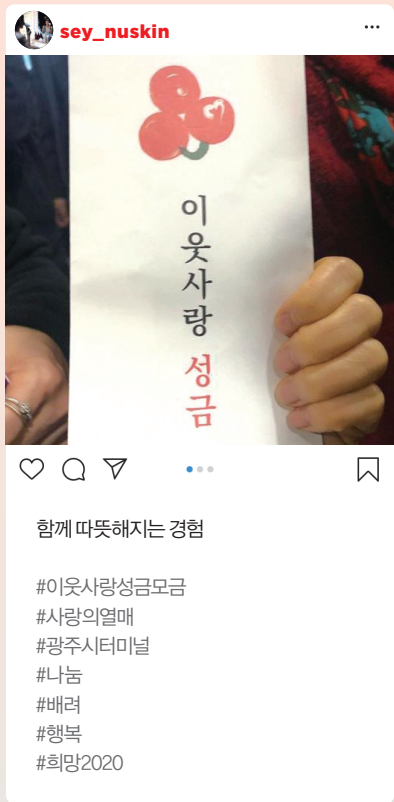
#육아일기 #성장일기 #고마워 #사랑해
#내보물 #부산맘 #미리크리스마스
#산타걸 #사랑의열매 #동전쓱



#사랑의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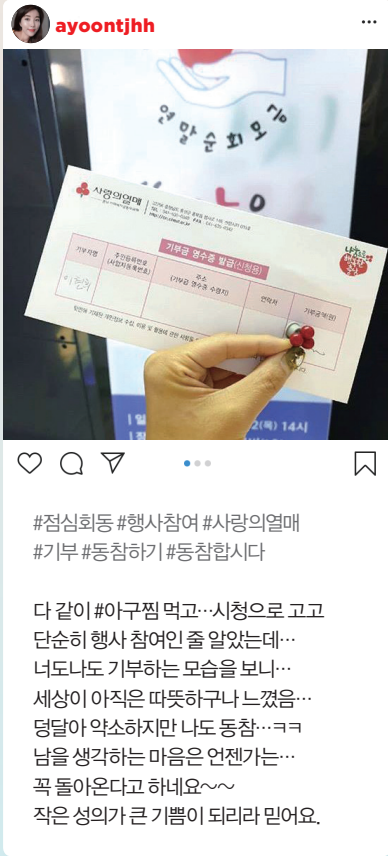
1:엄마! 이 사랑의열매 있잖아, 반에서
배려심이 많은 친구 투표를 했는데 나는
4표를 받았어. 최대가 5표였고,
나, ㅎㅎ, 스티, 7모, ㅎㅎ 이렇게 받았어.
그래서 받은 거야.

#이뿌듯함 #자랑스럽고사랑스럼
#배려심이많은친구 #고마워야들
#투아들랭 #파크브로 #내사랑
#똥강아지들



함께 따뜻해지는 경험

#이웃사랑성금모금
#사랑의열매
#광주시터미널
#나눔
#배려
#행복
#희망2020



#점심회동 #행사참여 #사랑의열매
#기부 #동참하기 #동참합니다

다 같이 #아구찌 먹고...시청으로 고고
단순히 행사 참여인 줄 알았는데...
너도나도 기부하는 모습을 보니...
세상이 아직은 따뜻하구나 느꼈음...
당달아 약속하지만 나도 동참...ㅋㅋ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언젠가는...
꼭 돌아온다고 하네요~~
작은 성의가 큰 기쁨이 되리라 믿어요.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의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어제는 어린이집에서 보내준 저금통
열심히 모아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에 넣는
행사 다녀오기

저금통에 돈 모으는 재미
불우 이웃 돕는 의미
좋은 경험 같다
사랑의열매는 어린이집 가방에 달아주기

CONTENTS



사랑의열매

vol. 153 2020 / 01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20년 1월 / 통권 153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4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작은 나눔으로 만드는 큰 변화

PART 1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나눔

PART 2 함께 찾아봐요, 참~ 쉬운 기부

PART 3 이야기와 놀이가 있는 나눔 체험관

10 희망2020나눔캠페인

'희망2020나눔캠페인' 시상파 3사 모금 특별 생방송

12 캠페인 현장

깊은 어둠이 내려도 나눔 등대는 가려진 이웃을 밝힙니다.

14 커버스토리

따뜻한 음식과 함께 새해 여는 스타 셰프 이연복

18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오름수학 최은희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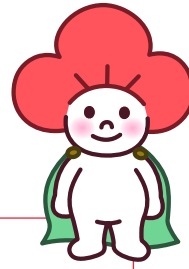
22 나눔 소식 1

제1회 사랑의열매 학술상 시상

23 나눔 소식 2

제7회 전국 초·중·고 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





24 누구나 함께

“아기 히어로 열매둥이의 대활약 지켜봐주세요”

26 현장 스케치 1

‘사랑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SK와이번스 박종훈 선수

27 현장 스케치 2

착한가게 3만 호 주인공 사회적 기업 ‘인스케어’

28 착한기업

인재 성장과 자립 돕는 두산

32 땀큐 사랑의열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36 이슈

‘사랑의열매×다음세대재단’이 함께 내디딘 첫걸음

38 더 좋은 해피엔딩

아름다운 약속을 준비하는 <사과나무 노트>

40 행복한 일터, 따뜻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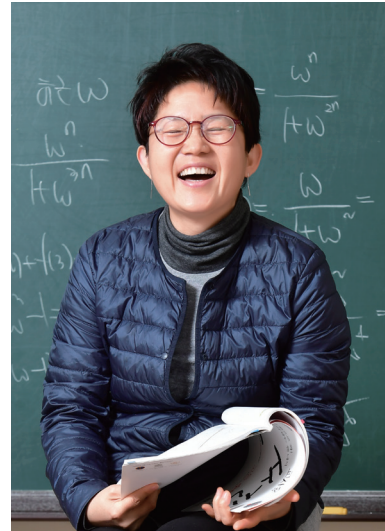
The Best 착한일터 46곳을 소개합니다.

42 전국 뉴스

중앙회, 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4 이달의 아너

56 독자 페이지



작은 나눔으로 만드는 큰 변화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나눔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건 뭘까. 큰 결단력? 많은 기부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작은 나눔이 하나하나 모여 큰 나눔 물결을 만들 때
우리 사회는 따뜻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나눔에 동참하며 한해를 의미 있게 시작해보자.



PART
1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나눔

표면적으로 보이는 액수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지닌 나눔이 존재한다. 저금통을 들고 온 아이부터 자신이 가진 것을 아껴 나눔을 실천하는 가정까지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동참한 소중한 나눔을 소개한다.

11년째 소중한 성금을 전달하는

김규정·홍윤주 가족

지난 12월 12일 김규정·홍윤주 가족은 전북 사랑의열매에 성금 15만 8,000원을 전달했다. 뇌 병변과 지체장애를 앓는 중증 장애인인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으나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9년 첫째 아들 하람이를 임신한 것을 기념해 전북 사랑의열매에 성금을 전달할 것이 계기가 되었다. 둘째 아들 하늘이가 태어나 네 식구로 늘어났지만, 11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쪼개 매년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주위에 깊은 울림을 준다. 남편 김규정 씨는 성금을 전달하며 “작게 시작한 나눔을 11년이나 이어오게 되었다. 작은 정성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분들도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매년 사랑을 나누고 있는 김규정·홍윤주 부부와 아들 하람·하늘이

반려견 착한가정 2호 탄생

망고네 가족

부산 최초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반려견 착한가정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망고네 가족으로 조대희·유수희 부부와 그들의 반려견 여섯 살 망고다. 부부의 네 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아 반려견 망고 이름으로 뜻깊은 기부에 동참한 것이다. 조대희·유수희 부부는 “망고와 함께 가족 이름으로 나눔 약속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많은 반려견 가족이 나눔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가입 소감을 전했다. 착한가정은 가족 이름으로 사랑의열매에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국내 반려견 가정이 1,000만 세대를 넘고 반려견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해 ‘반려견 착한가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남성 듀오 가수 노라조의 리더 조빈 씨와 반려견 다운이가 지난 10월에 가입하며 반려견 착한가정 1호가 됐다.



네 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아 반려견 착한가정에 가입한 '망고네 가족'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부 문화를 선보인 기부(Give)컴 캠페인

중고 PC 기부로 일석삼조 효과 기부(Give)컴 캠페인

사회문제를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랑의 열매의 의지가 담긴 '기부(Give)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방치하거나 처리 곤란한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등 전산 장비를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자원 순환 전문 사회적 기업인 자원순환사협을 통해 폐기하고, 그 수익금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성한 기부금은 정보 격차 해소 사업이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자원 순환과 환경보호, 일자리 창출 등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부 문화를 선보이며 앞으로 행보에 많은 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향의 정신을 받들어 나눔을 실천한 전국충향선발대회 수상자들



소다수 저금통으로 나눔을 실천한 메이플유치원생들

뽕그랑 한 톨~ 고사리손으로 참여한 소다수 나눔

메이플유치원

지난 12월 메이플유치원 원아 15명이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를 방문했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소중한 다수의 기부인 '소다수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며 소다수 저금통에 한가득 동전을 모아온 것이다. 아이들이 균것질도 참가하며 한 톨 두 톨 모은 동전은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이웃 사랑 성금으로 전달했다. 모은 동전을 기부하면서도 아이들은 아쉬운 표정 없이 오히려 밝은 미소를 보였다. 아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플리마켓 수익금을 전달할 맘 고운 미녀들

예음

지난 12월 12일에는 전국충향선발대회 수상자로 구성된 봉사단 예음에서 자선 플리마켓 수익금 전액인 100만 원을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이들은 충향의 정신인 순수한 사랑, 그리고 믿음을 받들어 아픔이 있는 이웃에게 따스하게 닿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다. 성금은 예음의 뜻에 따라 미혼모 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PART
2

함께 찾아봐요, 참~ 쉬운 기부

주위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나눔의 기회가 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은행에서, 설레는 여행길에서도 사랑의열매 모금함을 만날 수 있다.

현금·카드 모금이 모두 가능한 스마트 모금함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희망2020나눔캠페인 제막식 때 설치한 사랑의열매와 함께 스마트 모금함이 있다. 최근 카드 사용량이 늘면서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적어 기부를 하고 싶어도 모금함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현금은 물론 카드 결제까지 가능한 스마트 모금함을 설치해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의열매 배지가 비치된 은행·주민센터

희망2020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전국 주민센터와 은행(서울 기준 기업은행, 우리은행, 수협, 씨티은행,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은행 상이함)에 작은 사랑의열매 모금함을 비치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모금함과 함께 비치한 사랑의열매 배지를 가져갈 수 있어 나눔 후 기쁨과 뿌듯함을 선사하기도 한다.



(좌)은행에 비치된 모금함 (우)인천공항 SPC그룹 매장에 비치된 행복모금함

1회용 지하철 교통카드 기부 가능한 지하철 역사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 211곳에는 사랑의열매 모금함이 있다. 현금뿐 아니라 1회용 지하철 교통카드를 모금

함에 넣으면 보증금 500원을 기부할 수 있어 일상에서 쉽게 나눔 참여가 가능하다.

지하철 역사에 비치된 사랑의열매 모금함에는 1회용 지하철 교통카드 기부가 가능하다.



여행길 깜짝 기부, 인천국제공항 SPC그룹 매장 행복모금함

지난 11월 사랑의열매와 SPC행복한재단이 '해피 체인지(Happy Change)'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내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도너츠, 파스쿠찌 등 55개 매장에 행복모금함을 설치했다. 모금함을 통해 조성한 기금은 조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비혼 모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PART 3

이야기와 놀이가 있는 나눔 체험관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 별관 1층에는 나눔체험관이 있다. 체험과 놀이를 통해 나눔을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는 참여형 체험 공간이다. 매달 유아는 물론 초·중·고 학생 등이 나눔체험관을 찾고 있다.

체험으로 배우는 나눔의 진짜 의미

지난 12월 13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덕수유치원 7세반 원아 33명이 사랑의열매 나눔체험관을 찾았다. 아이들은 나눔 강사의 인솔 아래 본격적인 나눔 체험에 들어갔다. 나눔체험관은 크게 6개 구역으로 나뉜다. 먼저 1구역은 나눔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고, 2구역에서는 일상 속 나눔 실천과 나눔 방식을, 3구역에서는 경주 최 부잣집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속 나눔문화를 쉽게 배울 수 있다. 4구역은 나눔 종류를 배우고, 5구역은 장애 체험을 통해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

며 이해할 수 있도록 감각체험관으로 꾸민 공간이다. 마지막 6구역은 나눔의 긍정적 변화를 살펴보고 아이들 스스로 나눔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꾸몄다. 나눔 강사와 약 30여 분 동안 보고 듣고 체험하며 나눔을 배운 아이들에게 짧은 자유 시간이 주어졌다.

체험 소감을 적어 나눔트리에 달거나 우편함에 넣는 등 아이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아이들이 몰린 곳은 '나눔온도계'. 어린이용 운동기구 스텝퍼에 올라 다리를 힘차게 움직여 나눔온도계의 빨간불을 100℃까지 올리



는 방식이었다. 혼자 빠르게 발을 구른 아이는 이내 다른 친구와 속도를 맞춰 끝내 100℃까지 끌어올렸다. 조송현 군은 “나눔온도계를 혼자 하니깐 빨간불이 잘 안 올라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같이 했더니 금방 100℃가 됐어요. 같이 하니깐 쉬워요”라며 함께 하는 나눔의 의미를 깨우친 듯했다. 아직은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떠올리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을 터. 하지만 이날 체험을 통해 적어도 나눔 씨앗 하나는 뿌려지지 않았을까? 언젠간 씨앗이 싹을 틔우고 튼튼하게 자라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나눔체험관 이용 안내

위치 서울시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 나눔문화센터 1층
운영 시간 화~토요일 상시 개방(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일요일 휴관(월요일은 단체 견학만 가능)
이용 대상 유아 및 초·중·고 학생, 성인(나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단체 최대 30명 이내로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접수
견학 문의 02-6262-3034, www.chest.or.kr



나눔온도계 온도를 올리기 위해 함께 발을 맞추는 아이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우리도 다 아는걸요 일곱 살 어린이가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눔은요~”

아이의 눈은 순수하다. 어른이 자신의 철학과 인생 경험을 담아 나눔을 말하지만, 아이들은 다들 터. 일곱 살 순수한 아이의 눈에 비친 나눔은 어떤 것인지 덕수유치원 원생들에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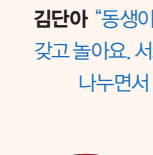


남류건 “고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제가 아기일 때 입던 옷을 고모네 아기한테 줬어요. 지난번에 아기가 내가 준 옷을 입고 있는 걸 봤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줄 거예요.”

조송현 “이제는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친구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친구들이 웃으면서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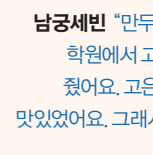
김윤재 “나눔체험관에 와서 나눔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음... 나눔은 친구에게 내 거를 주고 함께 노는 거예요.”



김단아 “동생이랑 놀 때 장난감을 나눠 갖고 놀아요. 서로 싸우지 않고요. 계속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장서운 “나눔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파리로 여행 갔을 때 외국 친구한테 제가 먼저 사과를 나눠줬어요.”



남궁세빈 “만두가 두 통 있었는데 미술 학원에서 고은이한테 만두 한 통을 줬어요. 고은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나누면 좋은 거예요.”





KBS 특별 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에 성금을 전달한 KBS2(아침이 좋다)팀

‘희망2020나눔캠페인’ 지상파 3사 모금 특별 생방송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 방법? 바로 ‘기부자’입니다”

지난 11월 20일에 시작한 ‘희망2020나눔캠페인’이 어느새 중반을 지났다. 많은 이의 정성이 모아지고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모금 특별 생방송을 편성해 캠페인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했다. 지상파 3사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한 생방송 촬영 현장을 지금 공개한다.

KBS 특별 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에 걸쳐 <나눔은 행복입니다>를 진행했다. 생방송 중 기부 관련 문의를 받는 행복나눔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성금 모금에 집중한 방송이었다. 또 9개 지역의 실시간 현장 모금을 중계하며 나눔으로 하나 되는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국 공공 기관과 기업은 물론 평범한 대학생, 유치원생까지 나이, 성별, 직업, 심지어 국적까지 불문하고 작은 정성을 더하는 따뜻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1부에서는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과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코미디언 황기순 등이 참여해 많은 국민이 기부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2부에서는 사랑의열매 강주현 사회 공헌본부장, 사랑의열매 아나이자 홍보대사인 배우 김보성이 자리해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과 함께 사랑의열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좌)MBC<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에 참여한 MC와 패널들 (우)KBS 특별 생방송 1부에 함께한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MBC 특별 생방송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지상파 3사 중 가장 먼저 MBC에서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다.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은 12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1·2부로 나누어 구성했다. 박연경 아나운서와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방송인 박수홍이 진행을 맡았으며, 사랑의열매 아너 회원인 배우 정보석과 방송인 현영, 사랑의열매 심정미 마케팅본부 홍보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1부에서는 희망2020나눔캠페인의 4대 목표와 배분 방향을 소개했다. 또 50년째 나눔을 실천하는 인천여성운전자회의 나눔택시와 한 달에 두 번 커피 이벤트로 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착한가게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2부에서는 비영리스타트업 사업, 성폭력 예방 인형극 공연 등 다양한 배분 사업을 다루며 앞으로 사랑의열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알렸다.

SBS 특별 생방송 <즐거운 나눔, 커지는 행복>

지난 12월 20일에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한 <즐거운 나눔, 커지는 행복>에서는 소다수(소중한 다수) 나눔을 조명했다. 달리기로 기부금을 모으는 사람들부터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이자 나눔리더인 뷰티 크리에이터 싸님의 메이크업 재능 기부 등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 이어 서울, 울산 등 10개 지역에서 현장 모금 상황을 중계했다. 전국마다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선 시민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은 방송에 참여해 사랑의열매 나눔 활동을 소개하고 “가진 사람만 기부한다는 생각을 넘어 누구나 나눔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희망2020나눔캠페인 동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12월 10~20일에 진행한 지상파 3사 특별 모금 생방송을 마무리했다. ❄️

(좌)KBS 특별 생방송에 참여한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김보성 (우)어린이들이 가득 채운 저금통을 기부한 SBS <즐거운 나눔, 커지는 행복>



깊은 어둠이 내려도

나눔 등대는 가려진 이웃을 밝힙니다

희망2020나눔캠페인(이하 나눔캠페인) 제막식과 함께 전국 17곳에 사랑의온도탑이 세워졌다. 사랑의온도탑은 매년 외형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이번엔 나눔캠페인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등대를 본뜬 현상이다. 빨간 등대로 바뀐 사랑의온도탑의 낮과 밤을 사진에 담았다.





4대 나눔 목표를 비추는 빛

전국에 세운 사랑의온도탑은 우리 사회의 나눔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다. 나눔 목표액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온도가 1℃씩 올라간다. 사랑의온도탑 100℃ 달성 여부는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100℃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만큼 사회가 얼어붙은 건 아닌지 돌아보는 여론이 형성된다. 반대로 100℃를 넘으면 작은 정성이 하나로 모여 큰 사랑이 된 것을 자축한다. 이렇듯 사랑의온도탑이 지닌 상징성은 대단히 크다.



이번 나눔캠페인의 사랑의온도탑은 '어두운 곳에 가려진 이웃을 찾아내 빛을 비춘다'는 의미를 담아 등대를 본떠 만들었다. 빨간 등대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어 캠페인을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한다. 특히 서울 광화문에 자리



리한 사랑의온도탑은 낮은 물론 밤에 그 진가가 더욱 발휘된다. 바다 한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LED와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 광화문광장 바닥을 비춘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정망 강화', '돌봄 네트워크 강화', '빈곤의 대물림 완화', '새로운 사회문제 대응' 4대 나눔 목표와 나눔 메시지가 나타나고 사라지길 반복하며 오고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잠시나마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떠올리게 만든다. 나눔캠페인이 끝난 후에도 사랑의열매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환하게 비출 예정이다. ❀

스마트모금함 기부자 MINI INTERVIEW



“마침 아이와 이 근처를 지날 일이 있어서 일부러 사랑의온도탑을 찾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나눔을 배워야 커서도 나눌 줄 안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기부의 기쁨을 경험해주고 싶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현금까지 챙겨왔어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아이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 이진희·기수민모자

“업무차 광화문에 가끔 오는데 현금이 없어서 그냥 지나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가다가 우연히 카드 기부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작은 금액이지만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연말이 되길 바랍니다.” - 박재홍





따뜻한 음식과 함께 새해 여는 스타 셰프 이연복

“함께하니까 더 행복한 요리사가 되었어요!”

명실상부 자타 공인 우리나라 최고 셰프 이연복이 연말연시 사랑의열매와 함께했다.

2019년 12월 사랑의온도탑 제막식부터 2020년 1월 회보 표지 모델까지.

또 이연복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사랑의열매와 함께 서울의 한 보육원을 찾아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요리하는 이연복을 만나보자.

가장 행복한 주방

중식당 목란의 오너 셰프인 이연복은 대한민국에서 바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다. 사업뿐 아니라 방송까지 전방위로 활동 중인 이연복을 만나기란 목란 예약 잡기만큼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 그런 그를 만난 곳은 목란 주방도, 방송 촬영장도 아닌 서울의 한 보육원 주방이었다. 바로 사랑의열매와 기부자들, 그리고 이연복 셰프가 함께하는 모두의 나눔 시즌 2 ‘福’s Day!’ 현장이었다. 이연복 셰프를 비롯해 기부자들이 보육원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주고, 새해맞이 만두도 같이 빚어보며 연말을 외롭지 않게 보내고자 하는 취지의 행사였다. 이 자리에는 이연복 셰프와 그의 아들 이홍운 셰프, 류창현 셰프, 도중범 셰프, 왕병호 셰프, 정지선 셰프, 조규성 셰프와 탤런트 한보름이 참석해 보육원 아동·청소년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평생 요리만 해왔는데, 오늘이 제일 긴장되면 서도 행복하네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는데... 맛있다고 하던가요?(웃음) 오늘

함께해준 지인들에게도 정말 고마워요. ‘같이 좋은 일 좀 해볼래?’라는 한마디에 다들 한걸음에 와준 거거든요.”

더 많은 나눔의 기회 가지고파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의외로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연예인이나 셰프가 많더라고요. ‘좋은 일 좀 해볼래?’, ‘같이 해보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저 불러주세요! 저 갈게요!’, ‘발 벗고 나설게요!’ 하며 적극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많이.”

이연복은 “이번 보육원 행사에도 스케줄이 맞지 않아 동참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연예인이



2019년 12월의 마지막날 이연복 셰프와 탤런트 한보름, 그리고 함께 봉사에 참여한 사랑의열매 기부자와 봉사자들

“
이웃과 함께하고
돌아오는 길이면
‘이연복 너
참 잘했어’ 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요.
위로하겠다고 나선
길인데 늘 위로받고
오더라고요.
남을 위하는
그 뿌듯함은 아마
제 요리로도 표현을
못 할 것 같아요.”

1 정글의법칙 촬영을 함께 한 인연으로 한길음에 달려와 함께 해 준 탤런트 한보름 2 이연복 셰프와 사랑의열매 김연순 총장 3 만두 만들기에 동참한 아이들. 4 작은 나폴리 류창현 셰프, 홍릉롱 정지선 셰프, 핑하오 왕병호 셰프, 목란 이연복 셰프와 이홍운 셰프, 탤런트 한보름, 홍릉롱 조규성 셰프, 도치피자 도중범 셰프

많았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나눔의 기회를 만들어 그런 뜻을 지닌 스타들을 동참하게 하고 싶다”는 따뜻한 포부를 내비쳤다. 직접 실천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는 말이어서일까, 그 어떤 다짐보다 진지하게 들렸다. 사랑의열매 29번째 홍보대사이기도 한 이연복은 그 누구보다 사랑의열매와 인연이 깊다. 착한가게가 입을 시작으로 ‘2030 토닥토닥 콘서트’ 멘토로 나서는가 하면 강원도 산불 당시 피해 구호 성금 2,000만 원을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또 희망2019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온도탑 제막식 등에 참석하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가끔 ‘내가 왜 이



렇게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하고 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고자 나선 일인데, 늘 제가 위로받고 오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요리사 인생 최대 위기

스타 셰프 이연복의 오늘날만 본다면 인생의 슬픔이나 위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이연복은 말한다. 좋은 날보다 고생한 날이 더 많았다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배달통부터 들었을 때는 말도 못 하게 힘든 시절이었다고 회고한다. 무서운 선배들에게 괴롭힘도 당하고 심지어 맞기도 했다.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티던 나날들이었다. 하지만 이연복에게 인생 최대 시련은 따로 있었다.

“축농증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할 때 신경을 잘못 건드렸는지 후각을 잃었어요. 인생 최대의 위기였죠. 요리사가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건 사형선고나 진배없잖아요. 열세 살 무렵부터 시작해 평생 요리만 해왔는데, 다른 직업을 가진다는 건 상상해본 일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최초 호텔 중식당인 호화대반점을 거쳐 주한 대만대사관 최연소 주방장으로 입



성해 승승장구하던 때였다. 인생 최대 위기 앞에서 이연복은 달랐다. 절망하기보다 ‘후각을 잃었다면 미각을 발전시키면 되지 않을까?’ 궁리하며 시련을 극복해나간 것. 맛보는 데 지장을 주는 모든 요소를 피해가며 ‘미각’만으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요리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연복은 ‘보다 예민한 미각’을 위해 금연하고, 과음을 삼가며, 아침을 거르고, 공복 상태로 주방에 들어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 조금 더 많이

이연복만의 나눔 철학이 궁금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성공 신화를 이룬 전형이자 멘토가 아닌가. 게다가 그 누구보다 어려움도 많이 겪은 그다.

“어려서 고생하며 너무 힘들 때, 마음 한편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줘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내 안에. 그러다 또 힘든 일이 닥치면... 뭔가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요. 꼭 금전적인 게 아니라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요.”

당시의 아득함이 이연복의 마음 한편에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일까, 이연복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인생을 돌아볼수록 더욱 그렇다. 지난해 12월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3



4

이연복 셰프 편이 방영되었다. 다큐가 방영된 날, MBC 모든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시청률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성공한 유명 셰프가 되었지만 늘 변함없는 그의 소탈한 일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이연복 셰프가 이날 방송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 대사로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자”는 말을 했다. 직접 만난 이연복도 방송의 이연복과 같았다.

“대한민국 사람은 정도 많고 힘든 일일수록 더 푹푹 멍치잖아요. 새해를 맞아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내시고, 건강 챙기시라는 안부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몸 튼튼할 때 좀 더 많이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이연복은 좀 더 많은 사람을 조금 더 많이 돕자고 힘주어 말하며, 이런 나눔을 한 발짝 더 발전시켜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 이웃들과 함께하는 요리사가 되어 행복하며 활짝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 이연복이었다. 🍀

“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스타들이
정말 많아요.
‘좋은 일 좀
해볼래?’라는
한마디에 다들 발
벗고 나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나눔의
기회를 만들어
같은 뜻을 지닌
스타들을 동참하게
하고 싶어요.
사랑의열매와
함께라면
다 가능하겠죠!

”

오름수학 최은희 원장

“아너 소사이어티 기사를 본 순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의지가 솟더라고요”

대학에 가기 위해 혈혈단신 서울로 올라와 그야말로 온갖 고생을 다 했다.

밥보다 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더 많았다. 대학 시험을 앞두고 학원 선생님이 단과 수업 두 타임 수강증을 끊어준 게
어태 같아야 할 고마운 빛으로 남아 있다.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51번째 회원 최은희 원장의 이야기다.

학원 접을 위기에 본 아너 소사이어티 기사

분당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름수학 최은희 원장(이하 최 원장)은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51번째 회원이다. 5년 약정으로 기부를 시작해 지난해 7월 완납했다. 약정 기부를 시작하고 완납을 한 지금 최 원장에겐 34개 통장이 혼장처럼 남아 있다. 모두 약정 기부금을 모아온 소중한 통장이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당시 학원 경영이 심각했어요. 학원을 접어야 하나 고려했을 정도로요. 그때 우연히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기사를 봤는데... 그 순간 ‘이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 질러버렸습니다.(웃음)”

작은 체구지만 시원시원한 말과 행동이 매력 있는 최 원장이다. 학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을 결정했다니... 요란하지 않게 말했지만 최 원장의 눈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누굴 도왔다는 생각은 거의 없어요. 갚는다고 표현하는 게 제겐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강해요. 왜냐하면 저도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너 소사이어티 완납을 완수하고 나니 의외로 담담하더라고요. 스스로가 기특하긴 했어요. 하지만 누구를 내가 도와주었다는 생각은 안 해요. 드디어 도움 받은 걸 갚았구나 했죠. 아너 소사이어티가 아니었으면 아마 평생 갚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받은 도움의 고마움어요.”

언제나 제 마음 한편에는 갚아야 하는데, 이걸 꼭 갚아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최 원장은 누구에게 커피 한 잔 허투루 얻어 마실 인상이 아니었다. 그런 그가 도대체 무슨 빛을 졌다는 걸까?

인생을 바꿔준 두 선생님

최 원장은 두 선생님을 이야기했다. 한 분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고, 또 한 분은 재수 시절 학



원 선생님이었다. 최 원장은 자신이 선생님
님이 된 것도, 또 기부를 하게 된 것도 모
두 이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라
고 말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요.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홀로 되
신 어머니와 가족 모두 시골로 이사를 하
게 됐죠. 전라북도 부안으로. 당시 제 별
명이 ‘빵순이’였어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던지 늘 빵점을 맞았거든요.”

시골로 전학을 가 만난 6학년 담임선생
님은 어린 최 원장에게 공부를 해야 한다
며, 열심히 격려하고 가르쳐주었다. 최 원
장은 그 선생님을 만난 후 늦공부를 시작
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늘 열심히 공부하
는 학생이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에 공
부를 한다는 것은 늘 사투였고 사치였다.

“중학교 때도 늘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불
려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에 간
다니 온 동네 사람들이 혼을 내는 거예
요. 딸이 돈을 벌어서 집안에 보탬이 되어
야지, 무슨 고등학교냐고요. 너무 슬퍼서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울었더니 목
사님이 ‘재는 학교 보내야 한다고’ 엄마를
설득해주셨어요.”

물로 배 채우며 공부하던 시절

최 원장 인생을 바꿔놓은 두 번째 선생
님은 재수 시절 만난 학원 선생님이다. 고등
학교도 겨우 진학했는데, 대학은 언감생
심이었다. 하지만 최 원장은 포기하지 않
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
와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공부를 하



며 대학 진학을 준비했다. 최 원장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기억하는 시간이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학원 급사부터 공장 보조 일까지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됐어요. 대학 등록금 저금하고, 독서실비 내고, 지하철비 좀 남겨두면 한 달 식비가 채 2만 원도 남지 않았어요. 친구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기도 했는데, 돈도 없고 친구도 오지 않는 날은 어쩔 수 없이 수돗물을 먹곤 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수돗물을 마실 때면 물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알 수 없었다며 최 원장은 눈시울을 붉혔다. 대학 시험을 앞두고 어렵게 공부하던 최 원장에게 학원 선생님 한 분이 단과 수업 두 타임 수강증을 끊어주셨다. 최 원장은 자신과 도시락을 기꺼이 나눠 먹던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수강증을 끊어준 선생님 덕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나중에 제가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너무 고마워서요. 그런데 정작 선생님은 저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웃음) 그때 더 크게 깨달았어요. ‘아!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인생을 바꾸는 큰 의미가 될 수 있구나’ 하고요. 선생님에게 별일 아닌 작은 도움이나 베풀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겐 인생을 뒤바꾸는 일이었거든요.”

더운 여름, 선풍기 한 대로 버텨준 가족

대학에 가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그 후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열심히 살았다. 남편 직장 때문에 광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큰아이 두 살 때 분당으로 왔다.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 있다가도 압박붕대를 감고 학원 수업을 했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 교육열 치열하기로 유명한 분당에서 이름난 수학 선생님이로 자리도 잡았다. 명문대도 톡톡 보내던 학원의 위기는 공부 못하는 학생

“돈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울 때 너무 두려웠어요.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꿈꾸는 것이 정말 꿈으로만 끝나면 어쩌나 무서웠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꼭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들을 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하지만 최 원장은 당시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 일수록 자신이 더 필요하다는 사명 때문이다.

“제가 받았잖아요, 그 도움을. 그리고 변했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가려서 받아요.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가요. 그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을 한 거였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받은 것을 갚을 때라는 것어요.” 학원을 접지 않고, 공부가 부족한 학생들을 받아 더 열심히 가르쳤다. 그리고 열심히 절약하고 모아 약정 금액을 매달 사랑의열매에 보냈다. 5년 완납을 했을 땐 의외로 담담했다고 최 원장은 말한다.

“남편과 아들 두 녀석에게 특히 고마워요. 기부 약정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텨거든요.(웃음) 그래도 싫은 내색 한 번 안 했어요. 지금도 집에서 땀을 뻘뻘 흘리던 남편 모습이 떠올라요.”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다시 학원은 좋은 평판이 나고 학생들이 모이고 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최 원장은 진짜 선생님이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벌써 바꿔놓았을 그런 선생님 말이다. ❀

당신 곁에 더 가까워진 사랑의열매

“아기 히어로 열매둥이의 대활약, 지켜봐주세요”

사랑의열매가 모두에게 한층 더 가까워졌다. 새로운 캐릭터 열매둥이를 선보이며, 친근감을 더한 것. 또 홈페이지는 대대적 리뉴얼을 거치며 모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소통 창구로 변모했다. 쉽고 재미있는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는 사랑의열매의 대변신을 공개한다.



선보이자마자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열매둥이’

지난 11월 28일 사랑의열매 새 캐릭터 ‘열매둥이’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습을 통해 온라인에 배포되었다. 카카오톡 검색 창에서 ‘사랑의열매 고객광장’을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하면 이모티콘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날 준비한 4만 개 물량을 단 5시간 만에 소진해 큰 화제를 모았다.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의 문구와 모션, 유행하면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열매둥이의 모습이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큰 사랑을 받은 것. 또 ‘희망2020나눔캠페

안녕하세요, 아기 히어로 열매둥이입니다~



아기 히어로 열매둥이는 사랑의열매 나무(백당나무) 아래에서 태어난 빨간 머리에 초록 망토를 두른 아기 장수입니다. 농담과 개그를 좋아하며, 가끔은 익살스러운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응원과 힘이 필요한 사람에겐 열매를 나눠주고, 세상에 밝은 행복 에너지를 퍼뜨려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인' 시즌에 맞춰 배포하면서 이모티콘의 주 사용자 층인 젊은 세대에 일상 속 기부와 이웃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게 했다.

앞서 사랑의열매는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는 새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캐릭터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에서 '언제나 내 곁엔 열매둥이 히어로'를 선정했고, 이를 활용해 지금의 열매둥이 캐릭터 개발과 이모티콘 제작을 진행했다. 1차 배포의 성공에 힘입어 1월 중순을 목표로 2차 이모티콘 제작과 배포를 준비하고 있다.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도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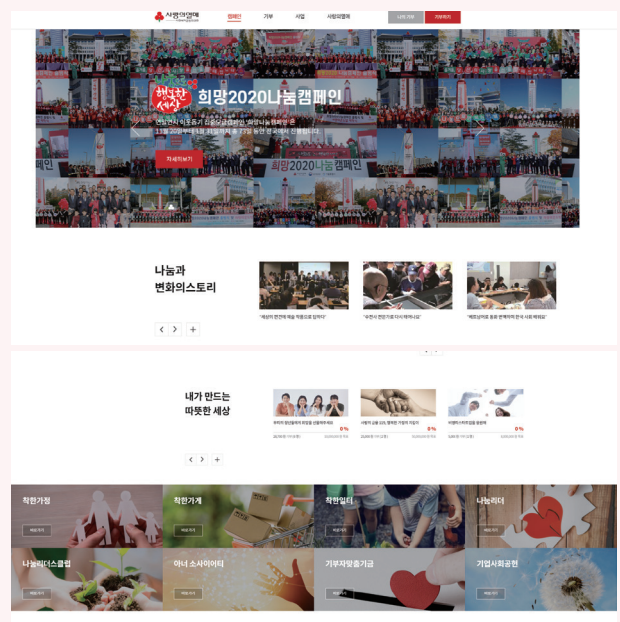
즐거운 나눔 콘텐츠로 가득

사랑의열매 공식 홈페이지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먼저 전체적으로 심플해진 디자인이 눈에 띈다. 이미지를 크게 배치해 방문객에게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깔끔하다는 이미지를 준다. 홈페이지 구성 또한 카테고리를 캠페인, 기부, 사업, 사랑의열매 내 영역으로 나눠 이해하기 쉽고 단순해졌다.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적용형 홈페이지로 만들어 웹과 모바일 모두 같은 디자인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 편의성도 증대했다. 먼저 별도의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내에서 기부가 가능해졌다.

계좌 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 무통장 입금 등은 물론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도 가능해 결제 방식이 다양해졌다. 또한 본인 기부 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번에 클라우드 펀딩 페이지를 도입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클라우드 펀딩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신개념 투자 방식으로, 사랑의열매 메인화면에 '내가 만드는 따뜻한 세상'에서 만날 수 있다. 사랑의열매 지원 사업, 기획 사업 중 사회적 의미와 필요성을 고려해 사례를 선정한 후 현장감 있는 스토리와 이미지를 담아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한다. 올해 3월부터는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개인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클라우드 펀딩 신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기부 완료 시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나눔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



‘사랑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SK와이번스 박종훈 선수

“도움 받은 아이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커주길”



2019 신한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SK와이번스의 박종훈 선수가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친 것을 인정받아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했다.



지난 12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19 신한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개최했다. SK와이번스의 박종훈 선수가 수상한 ‘사랑의 골든글러브’는 1999년에 처음 제정했으며, KBO(한국 야구위원회)와 사랑의열매가 함께 선정해 시상하는 특별한 상이다. 선행에 앞장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수 또는 구단에게 주는 상이라 그 의미가 더욱 아름답고 뜻깊다. 시상식에는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이 시상자로 참석해 박종훈 선수에게 ‘사랑의 골든글러브’상 트로피를 전달했다. 박종훈 선수는 “좋은 일 하는 선수가 많은데 제가 받게 되어 부끄럽고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더 큰 힘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박종훈 선수는 2018년부터 인하대병원과 소아암 환우 돕기 협약을

맺고 1승당 100만 원(선수 50만 원, 인하대병원 50만 원)씩 적립해 2018년에 14승, 2019년엔 8승을 올려 지금까지 2,200만 원을 기부했다. 또 1이닝을 던질 때마다 10만 원, 탈삼진 1개당 5만 원을 적립해 희귀 난치병 아동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야구단을 후원하기도 했다. 평소에도 어린이 팬에 대한 남다른 팬 서비스로 칭찬이 자자한 박종훈 선수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꾸준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박종훈 선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 지금은 삶이 힘들고 아플지 몰라도 이 아이들이 커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작은 성의라도 좋으니 많은 분이 기부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팬들에게 나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



착한가게 3만 호 주인공 사회적 기업 '인스케어'

“배분 파트너로 시작된 인연이 착한가게 기부로 이어졌어요”



사랑의열매가 3만 번째 착한가게를 맞이했다. 2005년 론칭한 이후 15년 만이다. 3만 호의 주인공이 된 사회적 기업 '인스케어'는 가입식에서 착한가게 인증 현판을 전달받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약속했다.

지난 12월 23일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착한가게 3만 호의 가입식이 열렸다. 착한가게는 중소기업자 매출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정기 기부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병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가 참여하고 있다. 2015년에 1만 호, 2017년에 2만 호를 달성하며 자영업자들이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대표 기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2005년 처음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탄생한 3만 호 기부자의 가입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3만 번째 착한가게의 주인공은 위생 환경 관리 전문 기업 인스케어다. 수도권 지역 10개 청소업종 자활 공동체가 노동 소외 계층의 안정적인 자활·자립을 위해 만든 사회적 기업이다. 홈 클리닝, 건물 관리, 해충 방제, 청소용품 유통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지역

사회 통합과 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고, 2015년 서울시 혁신형 사회적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가입식에는 인스케어 본점과 4개 지점이 동참해 착한가게 인증 현판을 전달받았다. 인스케어의 이창환 대표는 “착한가게가 우리 기업이 생각하는 나눔의 가치와 잘 맞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4만 호, 5만 호 달성을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에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은 “인스케어는 서울 사랑의열매 배분 파트너였는데, 이렇게 기부자로 다시 만나게 돼 더욱 뜻깊다”고 전하며 “착한가게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재 성장과 자립 돕는 두산

“인재 발전에 우리의 내일이 있습니다”

두산은 올해 창립 124주년을 맞은 국내 최장수 기업이다. 정상 자리에서도 존경받는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비결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있다. 두산은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두산의 CSR 활동은 국내외에서 기업의 사회 책임 경영 활동의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두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의무’로 정의하고, ‘사람에 대한 헌신’과 ‘지역사회에 기여’를 바탕으로 미래 인재를 위해 아낌 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 교육 투자에 주력해 미래 100년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두산 투모로우 랩(DOOSAN TOMORROW LAB)

PART1 **앞선 기술력으로 청소년 과학교육을 이끈다**

창의성을 키우는 과학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첨단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두산의 대표 프로그램 ‘투모로우 랩’이 눈길을 끈다. 두산 투모로우 랩은 청소년의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사랑의열매는 수행 기관인 어린이재단 서울북부지역본부와 함께 청소년이 어떠한 격차 없이 동등한 과학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 전국에서 선발한 130명의 중·고등학생은 한 학기 동안 두산의 여러 사업 분야와 연관 있는 과학기술과 원리를 배우고, 미

래에 당면할 문제 원인을 분석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동안 학생들이 수행한 프로젝트는 ●모형 굴착기 조립을 통한 유압의 원리 이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필터 창문 제작 ●에너지와 물 사용을 줄이는 스마트 화장실 구상 등 다양하다. 중학생은 자유학기제 정식 교과과정으로, 고등학생은 동아리 프로젝트형으로 도입해 진행한다. 각 학교에서 8월 말부터 운영하고, 이듬해 1월경 한 학기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하는 투모로우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도출한 솔루션을 개성 넘치는 방식으로 전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쌍방향으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기도 한다.

PART 2 산업 기술에 창의력과 상상력의 날개를 달다

투모로우 랩에 참여하는 중학생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한 학기 동안 총 16회의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전반기 8회 수업에서는 두산 제품과 관련한 키트(드론, 풍력발전, 굴착기, 로봇 팔)를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업로드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작은 컴퓨터인 아두이노를 조작하면서 생활 속 과학 원리와 코딩 기초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후반기 8회 수업에서는 상상력을 펼쳐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구상해본다. 키트로 하늘을 나는 굴착기, 초음파 센서로 쓰레기를 감지해 줍는 로봇 팔 등 자신의 상상력이 담긴 키트를 직접 제작해보는 것이다. 고등학생은 미래 사회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고민할 기회를 갖는다. 직접 사회문제를 찾는 것은 물론, 프로그래밍을 통해 앱을 제작하고 다양한 센서를 적용하는 등 솔루션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자동 분리수거 쓰레기통’, ‘무게를 감지해 종이컵을 사용할 때는 물이 나오지 않는 정수기’ 등 환경과 편의를 접목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활동에 참여한 창원 한일여자고등학교 김은주 학생은 “그동안 과학은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로봇이나 미래 기술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두산 임직원도 투모로우 랩에 조력자로 나선다. ‘투모로우 메이 트’라는 이름으로 자원한 두산 임직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학



1 투모로우 랩 1기 수강생은 투모로우 페스티벌에 참가해 그동안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하고 발표했다.

2 투모로우 랩에서는 코딩의 기초부터 프로그래밍, 앱 개발까지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3 드론, 풍력발전, 굴착기 등 다양한 제작 키트를 조립하고 분해하며 작동 원리를 익힌다.



생들에게 통찰력을 주는 미니 특강을 하고,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막히면 조언하는 역할도 한다. 퇴근 이후 시간을 투자해 학생들의 친구, 선생님, 언니·오빠가 되는 것이다.

두산 관계자는 “2018년 시작한 두산 투모로우 랩은 지금까지 전국 34개교 총 4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함께했다. 아이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에도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더 많은 청소년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두산- 시간여행자

사진으로 탐색하는 나, 너 그리고 우리

(주)두산이 2012년부터 시작한 '시간여행자'는 청소년이 사진과 인문학을 매개로 역사, 환경, 문화를 탐색하면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돕는 정서 함양 프로그램이다. 시간여행자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카메라 활용법

을 익히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을 촬영한다. 사진을 매개로 다양한 토론과 체험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과 세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탐색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뜻을 담아 찍은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의 의미와 역사, 커뮤니티와 관련한 주제 등을 탐구하는 방식이다. 사진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에세이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시간을 갖는다. 학과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직접 찍은 사진과 에세이를 바탕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 역사, 커뮤니티 세 가지 항목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시간여행자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약 800여 명의 청소년과 함께한 시간여행자는 사랑의열매 지정 기탁 사업으로 2019년부터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과 함께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해 참여자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 시간여행자 수강생들이 사진을 찍은 뒤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2 시간여행자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한 전시장 모습. 3 드림스쿨에서 만난 멘토와 멘티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4 두산의 임직원 멘토들이 멘티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모습





멘토와 멘티의 조언은 직업 탐색부터 관심 분야와 취미 등 생활 전반으로 이어진다.

두산중공업-마이드림 청소년진로체험교실 심층 설계로 찾아보는 맞춤형 직업 체험

‘마이드림 청소년진로체험교실’은 창원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을 후원하는 두산중공업만의 특화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자유학년·학기제 시행하기 이전부터 운영해온 사업으로, 지난해 창원지역 4개 학교 1학년 학생 100여 명이 한 학기 동안 진로 탐색과 체험, 설계 등 세 단계로 구성된 맞춤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진로체험교실에는 최근 열풍으로 떠오른 ‘유튜버’가 학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끌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 조종사와 로봇 공학자 등도 인기였다. 이 외에도 플로리스트, 심리 상담사, 수의사, 경찰, 법조인 등 40여 가지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두산중공업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심층 맞춤형으로 구성해 5년째 운영 중이다.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해보고, 40여 가지 직업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실제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보람이나 어려움을 생생하게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두산중공업 정연인 대표이사는 “학생들이 체험 기회를 통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지역의 청소년이 진로 탐색과 체험, 설계의 선순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두산인프라코어-드림스쿨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진로 탐색전

‘드림스쿨’은 사랑의열매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2012년부터 함께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꿈 찾기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서울과 인천·군산 등 회사 사업장 지역의 청소년에게 멘토링, 역량 강화, 체험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학교 2학년 때 드림스쿨에 선발된 학생들은 2년간 임직원 멘토들과 함께 대학교 탐방, 직업인 만나기 등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며, 고등학생이 되면 또래 학생들과 함께 구체적인 ‘꿈 만들기’ 계획을 세워 활동한다. 처음 1년은 멘토와 멘티가 월 1회씩 만나 진로 분야를 함께 탐색하는 ‘드림 리더스’ 활동을 하며, 2년 차엔 참가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드림 프로젝트’ 활동 중심으로 진행한다. ‘드림스쿨 홈커밍데이’는 드림스쿨의 연례행사로, 멘토와 멘티가 만나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멘티의 꿈 찾는 걸 응원하는 것이다. 드림스쿨 참가 학생들은 중학교 졸업 후 사회 진출까지 최대 5년에 걸쳐 전문가 멘토 강연,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장기 프로젝트다.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이 직접 멘토로 나서 참여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멘티 학생들과 멘토 임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드림스쿨은 학생뿐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며 “학생들이 꿈을 찾으며 변화하는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



두산 마이드림 ‘엔지니어 체험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두산중공업의 발전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301네트워크로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 끊어요”

“몸이 재산”이라는 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겐 비유가 아닌 현실이다. 몸이 아프면 곧장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 ‘보건·의료·복지 301네트워크’ 사업은 의료 빈곤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랑의열매 기획 사업으로, 현장에서 많은 성과를 내 눈길을 끈다.

‘보건·의료·복지 301네트워크’(이하 ‘301네트워크’)는 2016년부터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의료 기관이 협력해 어려운 이웃의 건강권 수호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치료비 지원부터 사회복지 자원까지 연계한다. 보건과 의료 그리고 사회복지 세 가지를 하나로 잇는 통합 지원이라 ‘301네트워크’로 명명했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채무는 늘고 갚을 능력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진다. 아파서 일을 못 하고, 일을 못 하니 돈이 없고, 돈이 없어서 병이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치료비 지원에 그치지만, 301네트워크는 치료비 지원부터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도록 만든다. 사람의 인생에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면 가족 구성원, 주거 환경, 심리 상태, 수



동주민센터에서 행정 지원과 복지 자원을 연계해주기도 한다.

입원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301네트워크는 의료 안전망으로서 역할뿐 아니라 더 넓게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 품은 ‘301네트워크’

301네트워크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작용한다. 지역사회 기관 간의 네트워크(지역 복지관, 요양 시설, 보건소, 주민센터)를 통해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은 301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 기관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301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 기관으로 연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심사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면 입원 및 외래 치료비, 검사비, 간병비, 이송료 등 1인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질병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와 민간 자원이 있지만,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각 과 의사와 간호팀, 행정팀, 의료사회복지팀 등이 모인 다학제간 회의에서 치료와 복지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



홀몸 어르신인 이 환자는 녹골 골절로 이송되었고, 요양 등급을 받을 때까지 입원 치료비 등을 301네트워크에서 지원받았다.

많다. 몸이 아파 거동하기도 어려운 당사자가 주민센터나 복지관, 병원 사회사업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응급 상황에 처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301네트워크는 이럴 때 대상자의 질병과 위기 상황에 맞는 복지 자원을 안내해주고, 이를 연계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각 영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과 적시에 연결하기만 해도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퇴원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을 확인하고, 지역 복지 기관과 연계해 맞춤 서비스를 계속 이어간다. 301네트워크는 치료는 물론, 치료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병원 이송부터 개입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유연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행정공백 메워

현재 의료 보장 체계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대상자의 현실적 요구와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실질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 의무자 기준, 재산소득 환산제 등으로 배제된 계층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뿐 아니라 엄격한 기준과 복잡한 수급 절차, 경직된 행정 처리로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젊은 당뇨 환자인 신영진(가명, 29) 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병 때문에 근로 능력을 잃은 신 씨는 치료비로 사체를 썼다가 빗더미에 앉고 말았다. 1년 전부터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투석 치료를 하려면 장애 등급을 받은 후 보건소에서 희귀 난치 질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신 씨가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투석 치료 이력이 있어야 하고, 신청 후에도 2개월의 조사 기간이 필요해 최소 5개월 동안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일주일에 10만 원씩, 한 달에 40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필요하지만 이조차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 본인부담금은



치료는 물론 재활과 주거, 일자리 지원까지 연계해 환자와 보호자가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재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301네트워크를 만난 신 씨는 장애 등급을 받을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301네트워크의 의료비 지원은 이처럼 지원을 신청하고 대상으로 선정될 때까지 행정의 공백 기간 동안 요긴하게 사용된다. 이를 위해 자체 심의 절차로 빠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고, 행정보다 빠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301네트워크는 보통 하루 만에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고, 첫 개입 이후 평균 한 달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상자 1명의 통합적인 욕구를 파악해 지원하고 있다. 301네트워크는 이처럼 유연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

“의료 빈곤의 늪에 빠진 20대 청년을 구하다”

이은진(가명, 24) 씨는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에 빠진 상황이었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그에게 내려진 진단은 당뇨.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평생 이를 모르고 살아 병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였다. 대표적 당뇨 합병증인 망막병증으로 오른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고, 빠진 치아도 10개가 넘었다. 그런 상황에서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의 301네트워크를 만난 것이다. 301네트워크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했을 뿐 아니라 동주민센터의 주거급여 신청을 도와 월세 15만 원의 보증자리를 마련해 줬다. 사연을 들은 지역 치과에서도 임플란트 시술 지원을 약속했다. 퇴원 후에는 301네트워크 지원 대상에게 반찬을 무료로 배달해주는 ‘라운드 키친’ 덕분에 당뇨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의료·복지의 통합 지원을 받은 이은진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며 “가장 힘들 때 기회가 찾아온 것 같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고립된 중년 여성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다”

가정 불화로 오래전 가출해 혼자 살아온 안영미(가명, 56) 씨.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안 씨는 건강이 나빠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 치료비는커녕 생활비도 없어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뒤, 월세도 내지 못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곡기를 끊고 움직일 기력도 없던 안 씨는 우연히 집주인에게 발견되어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 이송되었고, 301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았다. 이후 신체 질환뿐 아니라 우울증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200만 원의 입원 치료비를 지원했고, 초과되는 금액은 긴급 지원 사업을 연계해주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와 운동 능력 저하로 퇴원 후 전문 재활 치료가 필요했던 안 씨는 병원, 읍사무소, 군청의 지원으로 600만 원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받아 재활병원에서 3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퇴원했다. 301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던 안 씨를 지원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마련되었고, 안 씨는 건강과 삶에 대한 의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 안 씨는 “치료를 받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은 위로를 받았고,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히며 그제야 환하게 웃어 보였다.

건강한 비영리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랑의열매×다음세대재단’이 함께 내디딘 첫걸음

사랑의열매와 다음세대재단이 손잡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일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6개 팀을 최종 선발해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작한 것. 체계적인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통해 비영리스타트업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사랑의열매와 다음세대재단이 손잡고 새롭게 시작한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2019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 사업은 사랑의열매의 신규 지원 사업으로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비영리스타트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성장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굴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화한 솔루션에 도전하는 초기 비영리단체를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지원이 전무한 현실에서 이 사업은 신규 비영리단체에 절호의 기회가 된다. 3개월간의 지원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 6개 팀은 농산어촌 청소년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

육을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menTory’, 여성 인권 증진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더블유엔씨(WNC)’, 시민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제안하는 ‘오늘의행동’, 독립 대학 언론의 창간을 지원하는 ‘대학알리’, 인권 증진 등 시민 문화 콘텐츠를 보급하는 ‘미디어눈’,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성 존중과 협력 문화 체화를 위한 움직임 교육을 하는 ‘변화의월담’이다. 이들 6개 팀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2020년 5월까지 6개월간 각 팀마다 3000만원 내외의 사업비와 함께 공유사무실, 역량강화 교육 및 개별 코칭 등 초기 비영리단체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인큐베이팅 할 예정이다.



비영리단체들의 교육 모습. 이들 업체들은 6개월간 비영리 조직의 비전과 설립, 마케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큐베이팅 된다.

MINI INTERVIEW “2019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최종 선발된 팀, 대표 인터뷰

더블유엔씨(WNC), 대표 김혜원

“저희 단체의 방향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외부 사람이 생긴 점이 가장 좋아요. 저희의 목표와 미션을 명확하게 다듬을 수 있거든요. 인큐베이팅 기간을 통해 많은 사람이 비영리라는 영역을 친근하게 느끼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미디어는, 대표 송준호

“저희 팀원이 3개월 만에 9명으로 늘어서 팀워크가 중요해요. 그래서 조직력을 갖추는 방법을 많이 배우고, 팀원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싶어요. 영상과 기사의 질적 성장과 함께 임팩트 있는 행사를 열어 미디어눈이 업계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팀이 되는 게 제 목표예요.”

오늘의행동, 대표 정경훈

“시작하는 단계라서 아직 실험적 활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사랑의열매와 다음세대재단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를 선두로 모든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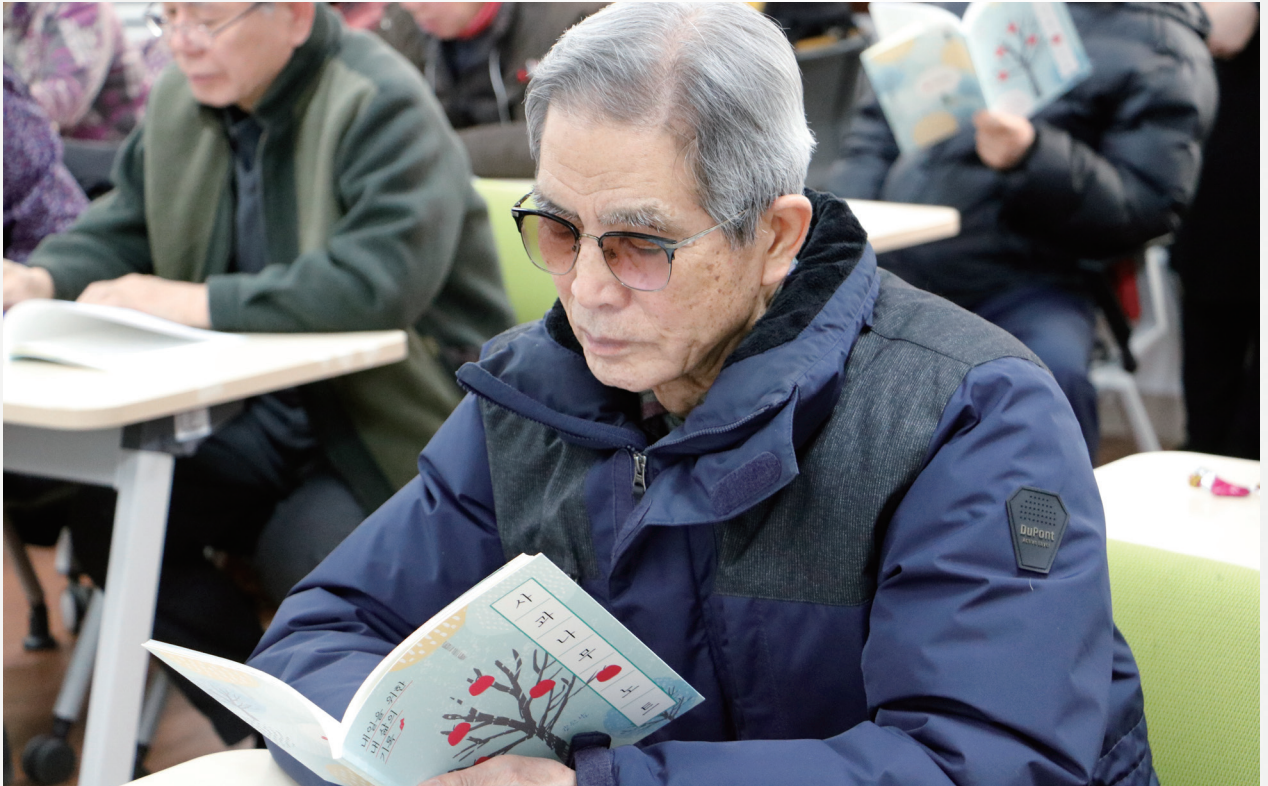
변화의월담, 대표 리조(문현정),

유닐(김윤일)

“움직임 교육이란 게 한국에선 낯설고 특정 소수에게 제공하는 예술교육인데요, 저희도 아직 배워가는 단계라 멘토가 필요해요. 50~60년의 경험을 쌓은 교육자들이 해외에 많은데, 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교육에 대한 기회가 생긴 것이 정말 좋아요.”

사회적협동조합 menTory, 대표 권기호

“인큐베이팅 사업은 사랑의열매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통해 비영리라는 우리 단체의 정체성을 다시 되돌아보고 싶고, 더 나아가 비영리 조직은 수직적이며, 비전이 없고 박공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해 새로운 비영리 조직의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스스로 써 내려가는 행복한 삶의 기록

아름다운 약속을 준비하는 〈사과나무 노트〉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뜻이 담긴 웰다잉(well-dying)이란 단어를 자주 쓰고 있다. 각자 웰다잉에 대한 정의는 다르겠지만, 유산기부야말로 진정한 웰다잉의 과정이 아닐까.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11월, 기부자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웰다잉) 준비를 응원하고, 유산기부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며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사과나무 노트〉를 출간했다. 〈사과나무 노트〉는 행복하던 삶을 돌아보는 ‘기억의 기록’, 마무리를 위한 준비를 돕는 ‘현재의 기록’, 다음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천을 다짐하는 ‘나눔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찬찬히 적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일생을 기록한 한 권의 자서전이 완성된다. 삶에 관한 질문, 웰다잉 콘텐츠, 유산기부 사연과 참여 서약서를 제공해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다. 또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도 〈사과나무 노트〉를 통해 한 번쯤 웰다잉과 행복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12월 20일 서울 종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사과나무 노

트)를 교재로 한 첫 강연이 열렸다. 어르신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죽음 웰다잉연구소 강원남 웰다잉 플래너가 '내일을 위한 내 삶의 기록, <사과나무 노트>'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의 1부에서는 웰다잉 교육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이해와 나누는 삶의 의미를 이야기했고, 2부에서는 어르신이 직접 <사과나무 노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살면서 받은 고마운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돌려주는 데 동참한다는 서명을 하며 나눔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열어지고, 의미 있는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생각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사과나무 노트>를 통해 우리 사회에 웰다잉과 유산기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란다. ❀



명사 3인이 보내는 <사과나무 노트> 출간 축하 인사



손숙 배우,
예술의전당 이사장, 웰다잉시민연대 이사
“요즘 제가 소유한 것을 조금씩 나누고 내려놓으며 삶의 무게를 빼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자연의 순환과도 같은 것이니 가볍게 돌아갈 수 있게 준비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 사회도 자연스럽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준비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봉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 1호 회원
“살아오면서 힘든 순간마다 이웃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감사함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지요. 이제 나눔은 나의 여생 동안 계속해야 할 소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 세대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가진 것을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김성수 우리마을 총장, 성공회 주교,
사랑의열매 제2대 회장
“저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우리마을’ 설립을 위해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나누었습니다.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은 나눔입니다. 오늘이 바로 나눔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사과나무 노트 문의처>

사랑의열매 중앙회 자원개발본부 02-6262-3082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최고의 나눔

The Best 착한일터 46곳을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19일 사랑의열매는 ‘The Best 착한일터’ 46곳을 발표했다. 착한일터에 가입한 기업과 기관·단체 중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을 특별히 선정했. 46곳 중 현대위아에서 대표 시상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The Best 착한일터의 나눔 활동을 알렸다.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착한일터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임직원 참여 나눔 프로그램으로, 전국 1,500여 개 기업·기관·단체 등이 가입해 있다. 착한일터 중에서도 임직원의 활발한 나눔 활동으로 긍정적인 사회 변화와 따뜻한 나눔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을 ‘The Best 착한일터’로 명명하기로 했다. ●착한일터에 3년 이상 가입하고 연간 1,000만 원 이상 기부 ●전체 임직원 중 50% 이상이 가입 참여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 46곳을 선발했다.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은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일터 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소중한 나눔을 널리 알리기 위해 The Best 착한일터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착한일터를 중심으로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감사 인사와 포부를 밝혔다.

1%로 지역사회에 기적을 만드는 현대위아

지난 12월 19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현대위아에서 The Best 착한일터 대표 시상 행사를 진행했다. 사랑의열매는 현대위아에 The Best 착한일터 현판을 전달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내식당에



사랑의열매로부터 The Best 착한일터 현판을 전달받은 현대위아



서 임직원 대상 감사 이벤트를 열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The Best 착한일터에 선정되어 감사드리며 모두 기뻐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현대위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상 소감을 전했다.

현대위아는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는 비전으로 2012년 경남 사랑의열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임직원이 급여의 1%를 기부하는 1% 기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1% 기적 캠페인을 통해 급여를 기부하는 임직원은 1,000여 명이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부액은 45억 2,000만여 원에 이른다. 이렇게 모은 기부금을 바탕으로 현대위아와 사랑의열매는 매달 다른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노인 가정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료비(손가락 재건 수술), 새터민 가정 물품 등을 지원했다. 또 2013년부터 현대위아 사업장이 자리한 인근 지역 복지 기관에 차량을 기증하는 드림카 전달식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2월 24일에는 1% 기적을 통해 모은 약 2억 8,500만 원으로 차량 10대를 구입해 지역 복지관에 기증했다. 2013년부터 이년까지 현대위아와 사랑의열매는 총 100대 드림카를 전달하며,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현대위아 The Best 착한일터 대표 시상 행사의 분위기는 남달랐다. 당일 많은 직원이 시상

행사에 참여해 자축하고, 감사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나눔문화 축제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것. 특히 룰렛에 다트를 던져 가습기, 사무용품 큐브, 치약 세트 등 작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한 직원들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다른 상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저금통을 가득 채워 나중에 기부하겠다며 일부러 저금통으로 바꿔 가져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 또 현장에 있는 모금함에 작은 나눔을 전달하는 직원들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시상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앞으로 계속 기부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현대위아를 시작으로 그 외 45곳의 The Best 착한일터에도 현판을 전달한다. The Best 착한일터의 활발한 나눔 활동이 다른 기업에도 전파되어 착한일터 활성화에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한다. 🍀

우리 지역에는 어디일까? 전국 The Best 착한일터 46곳

지역	현황	The Best 착한일터 기업명		
서울	3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현대오토에버	애경산업
부산	2	부산의료원	부산소방본부	-
대구	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인천	2	두산인프라코어	SK인천석유화학	-
광주	2	기아자동차 밀알봉사회	광주은행	-
대전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K계열사	한국철도공사	(주)화화종합연구소
울산	3	(SK에너지/ SK루브리컨츠/ SK종합화학/ SK이노베이션)	(주)효성울산공장	울산광역시 중구청
경기	3	(주)바텍	현대캐피탈	kr산업
경기북부	3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해피엔딩(주)	동두천시청
강원	3	강원도소방본부	공군제18전투비행단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충북	1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	-
충남	3	한국서부발전 (주)태안발전본부	동양포크리프트	현대도시개발
전북	3	전북은행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세아베스틸
전남	3	(주)녹십자 화순공장	(주)금호P&B화학	현대하이스코 한빛회
경북	3	한국철도공사경북본부 영주기관차승무사업소 사랑나눔기회	경북지방경찰청	경산시청
경남	2	현대위아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
제주	1	제주농협	-	-
세종	3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한화큐셀앤드 첨단소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앙회

문재인 대통령, 사랑의열매에 성금 전달하며 나눔캠페인 참여

지난 12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 연시 범국민 나눔캠페인 '희망2020나눔캠페인'을 진행 중인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방문한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과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배우 정보석 씨와 가수 겸 배우 수지 씨로부터 이웃사랑의 상징 사랑의열매를 전달받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부했다. 사랑의열매는 2019년 11월 20일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온도탑'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우고 '희망2020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걸고 2020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일제히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의 나눔목표액은 4,257억 원으로 2020년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배분 수요를 진단해 도출했으며, 모금액



은 4대 나눔목표에 따라 비율이 정해졌다. 4대 나눔목표는 '고독사에 방을 위한 안전망 강화', '돌봄네트워크 강화', '빈곤의 대물림 완화', '새로운 사회문제 대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동참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24일 연말연시 나눔캠페인을 진행 중인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으로부터 이웃사랑의 상징인 사랑의열매를 전달받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정운현 비서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함께해 진행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웃사랑 성금 기부

지난 12월 9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인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은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으로부터 이웃사랑 상징인 사랑의열매를 전달받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과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온정의 손길로 성금 전달

사랑의온도 100도 달성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도 희망2020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12월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연말연시 나눔캠페인 성금전달식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전달식에 앞서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으로부터 이웃사랑의 상징인 사랑의열매를 건네받았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랑의열매 모형의 모금함에 성금을 넣으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SK그룹, 120억 원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

SK그룹(회장 최태원)이 지난 12월 19일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기부하며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전달받은 성금 120억 원은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우리 이웃,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SK는 앞으로도 행복 나눔 활동을 꾸준히 벌여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려아연, 30억 원 기부로 연말연시 나눔캠페인 참여

지난 12월 11일 고려아연(주)(회장 최창근)이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30억 원을 기부하며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 전달받은 성금 30억 원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의료비, 장학금, 기초 생활 물품 구입비 등에 사용한다. 고려아연(주) 이세중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참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주)은 2007년부터 매년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하고 있으며, 누적 기부액이 238억여 원에 달한다.



하나금융그룹, 100억 원 기부로 희망을 전달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이 지난 12월 16일 사랑의열매에 성금 100억 원을 기부하며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특히 이번 성금은 하나금융그룹내 12개 관계사가 모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성금 전달식에서 김정태 회장은 "사회적 가치관과 디지털 기술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급변해도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고 더욱 커져야 한다"며 "사회 전반에 희망의 온도를 높여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산그룹,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30억원 전달

두산그룹(회장 박정원)은 지난 12월 11일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으로 30억원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전달받은 성금은 청소년 융합과학 인재육성,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서함양 지원,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교육 및 자립 역량 강화(C-SDGs.4)와 경제적 빈곤 퇴치(C-SDGs.1)에 쓰인다. 두산그룹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랑의열매를 통해 15년간 꾸준히 기부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효성그룹,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10억 원 기탁

지난 12월 10일 효성그룹(회장 조현준, 이하 효성)이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10억 원을 기부하며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효성은 지난 2003년부터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시작해 2009년부터는 매년 10억 원을 기부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나눔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GS, 희망나눔 성금 40억 원 기부

GS(회장 허창수)가 지난 12월 23일 사랑의열매에 '희망2020나눔 캠페인' 성금 40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받은 성금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과 위기 가정의 생계, 의료, 교육비 지원 등 긴급 지원에 사용한다. GS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기부해 희망나눔 성금 누적액이 560억 원에 달한다. 허창수 회장은 "고객과 함께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경영 이념으로 매년 기부하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림 이준용 명예회장, 10억 원 기부

지난 12월 13일 대림 이준용 명예회장이 이웃사랑 성금 10억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이 회장 측이 사랑의열매 계좌로 10억 원을 기부해 별도의 가입식 없이 이루어졌다. 사랑의열매는 이준용 명예회장을 아너 회원으로 예우하기로 결정하면서 아너 2,200호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 회장은 2019년 1월故 김수환 추기경의 나눔 정신을 이어가고자 설립한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33년간 살던 자택을 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희망 전해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회장 안병근)이 지난 12월 5일 서울 사랑의열매와 함께 용산구의 아동 보육 시설을 찾아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희망을 전하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석한 아너 클럽 회원 20여 명은 아이들에게 안겨줄 선물을 포장하고, 아이들과 함께 트리 장식을 만들었다. 안병근 회장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어 무엇보다 훈훈하고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SC제일은행, 서울 사랑의열매와 퓨처메이커스 모금 협약

SC제일은행이 지난 12월 3일 서울 사랑의열매와 퓨처메이커스(Futuremakers) 활동 모금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SC제일은행 임직원의 월급에서 약정 금액이 자동 기부된다. 퓨처메이커스는 청년층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경제적 포용 확대를 목표로 교육 기회 창출,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계속해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남

전라남도치과의사회, ‘나눔리더스 클럽’ 가입

전라남도치과의사회가 지난 12월 12일 목포 MBC에서 ‘나눔리더스 클럽’ 전남 2호로 가입했다. 이번 가입식에는 홍국선 전라남도치과 의사회장, 전남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처장, 목포 MBC 김영석 사장 등이 참석했다. 홍국선 전라남도치과의사회장은 “뜻을 모아준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희망지킴이 선포식’ 개최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지난 12월 12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희망지킴이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용재 전라남도의회장 및 도의원,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산타 모자를 쓰고 기부에 동참했다. 희망지킴이 선포식은 2014년부터 시작해 매년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이 참여해 모은 성금은 1,379만 6,000원이다.

세종 신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3명 합동 가입식

세종 사랑의열매는 지난 12월 12일 세종 사랑의열매 사무실에서 세종 14호, 15호, 16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날 가입한 신규 아너 회원은 세종첨단산업단지(주) 박상혁 대표이사, (합)농업법인 매바위 김은기 대표, 세종시 최고의 맛집 산장가든 정해석 대표이다. 회원들은 앞으로 5년 동안 1억 원을 기부해 세종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할 예정이다.



(주)보쉬전장, 2019년 김장 나눔 행사 및 식료품 전달

세종시 부강면 소재 (주)보쉬전장 봉사 동호회 '사랑, 행복더하기' 모임은 2019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세종시 다문화 가정 가족들과 장애인 시설 소망의 집 생활인들이 참여했다. 이날 담근 김장은 세종시 사회복지 기관과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장애인 시설에 지원했다. 특히 (주)보쉬전장은 착한일터에 가입해 매월 100여만 원의 성금을 기탁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구 사랑의열매, 2019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개최

지난 12월 10일 대구 아너 회원과 대구 사랑의열매 김수학 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과 관계자 80여 명이 모여 '2019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신규 아너 회원 가입과 소개, 2019년 대구 아너 경과 보고, 나눔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만찬에서는 아너 회원과 함께 대구의 고액 기부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국우동, 북구 첫 번째 착한마을 탄생

국우동은 대구 북구에서는 1호, 대구에서는 세 번째 착한마을로 선정됐다. 착한마을은 대구 사랑의열매 '착한대구 착척! 착척!' 사업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착한일터,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 다양한 기부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면 착한마을로 선정된다. 모은 성금은 사랑의 밑반찬 배달, 오늘은 머리하는 날, 행복한 SHOW 봄나들이, 행복장학금, 연탄 배달, 김장 나누기, 긴급 구호금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

제8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개최

전북 사랑의열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꾸준히 실천하는 전북지역 아너 회원들을 한자리에 모은 '2019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도내 아너 회원 및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병관 대자인병원장과 (주)대두식품 조성용 대표이사, (주)금호엔비텍 이지태 대표이사, 청운농장 김현욱 대표 등 4명이 신규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주)참고을, 이웃 돕기 성금 1억 원 기탁

김제순동산업단지 내 (주)참고을(대표 김운권)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 돕기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주)참고을은 2015년부터 전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전북 1호 나눔명문기업이다. 김운권 대표는 "지역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남 나눔리더 109호 탄생

경남에 109호 나눔리더가 탄생했다. 김원식 씨는 2014년 함안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퇴직한 후 2019년부터 폐지를 모았다. 김원식 씨는 폐지를 주워 모은 수익금 200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특히 김원식 씨는 2016년부터 간암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김원식 씨는 "작은 나눔이지만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이런 기쁨을 누리는 따뜻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했다.



익명의 '경남 나눔천사' 5,000여만 원 기부

경남 사랑의열매 사무국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오고 사무국 앞에는 편지와 5,054만 6,420원이 든 봉투가 있었다. 익명의 나눔천사는 2018년 1월 2억 6,400만 원, 12월에 5,534만 8,730원, 2019년 5월에는 진주시 아파트 화재 지원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익명의 나눔천사는 "1년 동안 부은 적금을 기부한 것으로 몸이 아파도 가난해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 노인과 홀몸 어르신들의 의료비로 사용하길 바란다"는 메모를 남겼다.

대유위니아그룹,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 2억여 원 기탁

대유위니아그룹(회장 박영우)이 지난 12월 5일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 2억 522만 5,000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스마트저축은행이 1억 원, 위니아딤채·대유에이텍·대유에이피·대유플러스가 각각 2,500만 원, 대유에이텍 임직원들이 522만 5,000원을 기탁한 것이다. 대유위니아그룹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온정이 확산되도록 앞으로도 그룹 차원의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 합동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누기' 봉사 및 4,000만 원 전달

지난 12월 18일 기아차광주공장은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광주 사랑의열매에 4,000만 원을 전달하고, 노사가 함께 김장 봉사에도 참여했다. 광주김치타운에서 실시한 김장 봉사에는 기아차 박래석 광주공장장과 박동주 전국금속노동조합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200명이 참여했다. 이날 담근 김장 김치는 광주지역 사회복지관 18곳에 전달했다.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1억 9,000만 원 상당 한돈 전달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는 지난 11월 29일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를 열고 1억 9,000만 원 상당의 제주산 돼지고기를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 한돈 나눔 행사는 2013년부터 7년간 이어져오고 있다. 김재우 회장은 "어려운 이웃의 건강을 위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돼지고기를 기탁했다"라고 말했다.



조이바이오 영농조합법인, 2억 원 상당 산삼배양제품 기탁

조이바이오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철균)은 지난 12월 5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조이바이오 사무실에서 2억 원 상당 산삼배양제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받은 물품은 조이바이오 영농조합법인이 도내 신장 장애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한국신장장애인제후협회에 전달했다. 김철균 대표는 "힘든 투석 생활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

평택시 어린이집 18곳, 착한어린이집 단체 가입

지난 12월 18일 경기 평택시청 회의실에서 평택시 어린이집 18곳의 사랑의열매 착한어린이집 단체 가입식이 있었다. 또 이번 가입식에서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모금한 우유 팩 저금통을 전달받았다. 우유 팩 저금통 성금은 18곳의 착한어린이집 어린이들이 함께 모은 1,024만 5,190원으로 사랑의 온정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평택행복 나눔본부의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파주상공회의소 회원, 송년 이웃 돕기 성금 전달

지난 12월 18일 파주상공회의소(회장 권인욱)가 이웃 돕기 성금 2억 2,537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전년에 이어 지속해서 진행된 송년 세미나 및 이웃 돕기 성금 전달 행사에서 이루어졌다. 파주상공회의소 소속 118개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성금이다. 또한 이날 행사 시 저녁 식사도 거르고 그 비용까지 기부했다. 권인욱 회장은 "이런 나눔 참여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원 성금으로 사회적 배려 학생 지원

지난 12월 16일 대전 사랑의열매는 사회적 배려 학생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3억 3,000만 원의 배분금을 전달했다. 2012년부터 대전 사랑의열매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는 '제자사랑나눔캠페인'으로 모금한 것이다. 모금액은 총 2억 8,700여만 원이며, 대전 사랑의열매에서 4,300만 원을 추가 매칭해 배분했다.



희망2020나눔캠페인 대전시 순회 모금 진행

대전 사랑의열매는 12월 3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대전광역시청 순회 모금'을 허정태 시장을 비롯해 시청 임직원 등이 성금을 넣으며 시작했다. 또 (주)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원장 김윤호) 2,500만 원,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1,500만 원, 세원화성주식회사(대표 국승원) 1,000만 원, 유한김벌리(주)대전공장(공장장 전병영) 1,000만 원,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600만 원, 대전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귀성)에서 120여만 원을 기탁했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성금 전달식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회장 김광홍, 이하 충북노인회)가 지난 12월 9일 충북 사랑의열매에 1억 5,300여만 원을 기탁했다. 충북노인회는 2018년 9월 충북 사랑의열매와 업무 협약을 맺고 1억 4,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 금액은 전년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물론 참여 경로당 수 또한 89개소가 증가해 도내 경로당의 92.7%가 나눔에 동참했다. 충북노인회의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성금 전달은 젊은 세대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주)국보사이언스, 가정용 살충제 1만 2,000개 물품 기부

(주)국보사이언스(대표 안호영)에서 가정용 살충제 4,600만 원 상당 1만 2,000개를 충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업인 (주)국보사이언스는 청주시에서 선정한 '2018 유망 중소기업'으로 자사 제품인 바퀴케이오라인500, 파리눅다운 등 5종을 지원했다. 안호영 대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병충해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성금 20억 원 전달

지난 12월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공사)는 부평역 광장 사랑의온도탑 앞에서 인천 사랑의열매에 성금 20억 원을 기부했다.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하는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한 것으로, 공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구본환 사장은 "올해도 공사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희망 2020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순화 유진이엔지 대표,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138호 가입

지난 12월 19일 이순화 유진이엔지 대표가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138호로 가입했다. 이순화 아너는 2019년 1월, 아너 130호에 가입한 남편 송석만 아너의 활동 모습에 감명받아 아부부 아너 가입을 결심했다. 이순화 아너는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나눔으로 인천 지역의 소외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2019 부산 사랑의열매 '감사의 밤' 개최

부산 사랑의열매는 지난 2019년 12월 11일 기부자 및 관계자와 내부 위원을 초청해 한 해 동안 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후원으로 부산문화재단과 공동 주최했다. 1부는 BNK실내음악단의 재능 기부로 연주를 감상했고, 2부는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독립 영화를 관람하고 관객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관객과 대화의 시간은 김초희 감독 및 강말금 배우, 배유람 배우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한일냉장오중수 회장, 부산 세 번째 초고액 아너 회원 가입
지난 12월 13일 한일냉장 오중수 회장이 3억 원 기부 약정을 하고 '하이클래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했다. 오중수 회장은 2013년 12월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속한 아너 회원에 가입한 지 6년 만에 초고액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중수 회장은 "나눔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경북 사랑의열매, '12월 사랑 산타 선물' 물품 지원

경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12월 16일 고령군청에서 경북 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경상북도지원단에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12월 사랑 산타 선물' 성금 전달과 1억 원 상당 물품 키트를 포장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12월 사랑 산타 선물 키트는 수면 양말과 장갑, 무릎 담요 등 방한용품과 문구 세트, 수학 교구, 다양한 간식으로 구성했다.



경북 건설5개 단체, 이웃돕기 성금 5,664만 원 기탁
경상북도 5개 건설 단체가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 5,664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각 협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2,000만 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1,864만 원, 대한건축사협회 경북도건축사회 1,000만 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북도회 500만 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북도회에서 300만 원을 기부했다.

충남

도원이엔씨(주) 성우종 대표, 3억 원 기탁

지난 12월 11일 서산에 위치한 도원이엔씨(주) 본사에서 성우종 대표가 3억 원을 충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우종 대표는 충남3호 아너 회원이고, 도원이엔씨(주)는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해 3년간 5억 원의 성금 기부를 약정했다. 성우종 대표와 도원이엔씨(주)의 이번 기탁으로 총기부액은 24억 원(법인인 19억 6000만 원, 개인 4억 4,000만 원)이 되었다. 성우종 대표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이 순리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봉사과 기부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금 5,000만 원 기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공장장 송광수)은 지난 12월 17일 노사 합동으로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받은 성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행복키움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송광수 공장장은 “우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아산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소통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울산

'제6회 울산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제' 개최

울산 사랑의열매는 지난 11월 27일 롯데시네마 성남점에서 '나눔문화제'를 열었다. 여섯 번째를 맞은 이날 행사는 울산 사랑의열매 장기 개인기부자, 착한가게, 단체 및 2019 유공자 시상식 수상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사는 사랑의열매 소개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마술 쇼로 식전 공연을 펼쳤고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울산 사랑의열매, 기업 사회 공헌 간담회 개최

울산 사랑의열매는 지난 11월 22일 오후 2시에 울산항만공사에서 기업 사회 공헌 담당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 지역 기업 사회 공헌 확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는 지역 복지 수요 정보 공유 및 CSR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기업의 관심을 높이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제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0년 신청사업과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 안내 교육 진행**

강원 사랑의열매는 지난 12월 6일과 12월 9일에 2020년 신청사업 선정 기관 53개소와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 선정 기관 34개를 대상으로 전달식과 수행 안내 교육을 했다. 행사는 6일에는 원주시 한 국관광공사에서, 9일에는 강릉시 녹색체험도시센터에서 진행했으며 각각 신청사업 6억 원과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 10억 5,550만 원을 도내 사회복지 기관과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했다.



**블랙밸리CC 지역 환원 적립금,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지난 12월 16일 블랙밸리CC(대표이사 직무대행 최승희)는 '희망 2020나눔캠페인' 성금 1억 7,6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받은 기부금은 골프장 클럽 하우스에서 소통과 나눔을 주제로 골프장 개방 행사와 지역 환원 적립금으로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수익금 일부를 전달한 것이다. 최승희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중앙 2178호



정승우 유중재단·유중아트센터 이사장
“그동안 대학병원을 통해 의료비 지원과 대학교 장학금을 후원해왔지만, 사랑의열매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문화 예술인을 지원하고 문화 격차 해소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좋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도 마음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 2188호



이종욱 강남글로벌서울안과 대표원장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이후에도 늘 해온 것처럼 손이 닿는 범위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너 소사이어티가 채워줄 것이라 믿습니다. 의료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것이 기부를 하며 갖게 된 간절한 소원입니다.”

경기북부 40호



김원조 김원조세무사사무소 세무사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또 내 주변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광주 100호



박기향 선진건설 대표이사
“광주 100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광주 101호



장하영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과 함께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생일날 뜻깊은 일에 아너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너무 감격스럽고, 열심히 나눔을 실천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쓰겠습니다.”

대구 144호



김원희 HS크린텍 대표, 대구 135호 회원 김관한 대표의 형
“주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우리 형제가 함께 아너 회원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합니다. 나의 작은 결심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 **중앙** 이흥기 디에뜨의원 원장
이중원 전업 투자자
고순구
- **서울** 이진민 (주)자연인 대표이사
- **경기** 김병철 아주엘이비인후과 원장
정규영 오산버팀병원 원장
- **강원** 강영희 한림대학교 석좌교수
이범정 서우정형외과 원장
- **대구**故 정규열 (전) 대구시 남구청 공무원

- **충북** 김복순
팜티람
이현룡 (주)행복을굽는사람들·오발탄 대표이사
- **충남** 박충현 미르지엔아이 대표
- **전남** 허민석
장영 (주)하이테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경남** 공진휘 디에이치시스템 대표
- **울산** 황길현 하나유치원 원장
정해균 울산항 도선사

- **전북** 이병관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대자인병원 원장
조성용 (주)대우식품 대표이사
이지태 (주)금호엔비텍 대표이사
김현욱 청운농장 대표
- **부산** 김옥연 하운드호텔 회장
故 엄창현
故 유경옥
엄태진

대구 145호



故양무희 동의대학교 검임교수
“먼저 하늘나라로 간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오랫동안 기억되고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마음으로 전해졌으면 합니다.” **故양무희** 여사 자녀

경남 118호



김종주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나눔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이며, 마음을 가꾸는 자양분입니다.”

경남 119호



김성진 (주)삼열전기 대표이사
“소소한 나눔으로 행복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부산 177호



이승윤 (주)에스에이치씨 대표
“기쁜 일은 서로의 나눔을 통해 두 배로 늘어나고, 힘든 일은 함께 주고받음으로써 반으로 줄어든다는 신념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178호



김영주 유창중건설 회장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유년 시절을 가끔 떠올리며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부산 179호



신진희 국제식품정육백화점 사장, 부산 132호
정창교 (주)국제식품 회장 배우자, 부산 20호 부부 아너
“사업 초기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이제는 어려운 이웃들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미래를 응원할 계획입니다.”

인천 136호



박봉주 인천제일기계(주) 대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137호



변종석 (주)세이프티컨설팅 이사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이며, 지역사회 어려운 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경북 109호



유영상 바른유병원 대표원장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꿈을 응원해나가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전남 88호



하정완 목포하이치과의원 원장
“예전부터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고민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전남 89호



김일재 곡성 옥과한우촌 회장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줄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고향의 복지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에 동참하겠습니다.”

전남 91호



조생구 목포한사랑병원 원장
“오늘이 있기까지 믿고 지지해준 지역민들의 성원과 헌신적으로 수고해준 직원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한사랑병원을 아껴주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그 기대에 부응하여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독자 의견



아프리카 반투족의 '우분투(ubuntu)'라는 말에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글을 읽고 되새겨보니 동양의 자타불이(自他不二) 사상이 떠올랐습니다. 학창 시절 가난해서 수학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어머니의 집을 들고 장터로 갔다는 그의 추억담을 듣고 저의 추억도 소환해보았습니다. 저 역시 학창 시절 서양화에 재능이 있었지만 가난해 값비싼 미술 재료를 감당하지 못해 공업고로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미술의 재능을 살려서 건축설계 일을 하며 저자체에 조금이나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필보님의 수기를 읽고 지정 기탁 제도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졸업한 중학교에 미술에 재능 있는 후배들에게 지정 기탁을 통해 그들의 꿈을 실현해주고 싶습니다. - 배건웅 서울시 구로구

반려견 다온이와 2,000번째 착한가정에 가입한 '노라조' 조빈 씨의 인터뷰는 저 역시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웠습니다. 2,000번째 착한가정이자 반려동물과 함께한 착한가정 1호라는 명예로운 타이틀도 보유했게 되어 더욱 뜻깊었을 것 같아요. 노라조가 힘든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목표인 것처럼, 사랑의열매도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한마음이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착한가정의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는 조빈 씨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박미경 경남 창원시

'빈 통장의 기적'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평범한 데서 위대함을 찾겠다는 말을 빈 통장의 기적에서 찾았습니다. 환경 미화 회사에서 일하면서 주변 사회를 깨끗이 하는 일도 존경받을 만하네, 한발 더 나아가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선 류제황 (전) 회장님이 대단해 보입니다. 모금함 앞에서 열미를 날까 고민하던 저를 반성하게 되네요. 아직 세상에 걸로 평범해 보이지만 무림의 고수처럼 속이 깊고 마음이 따뜻한 나눔의 고수가 준비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통장을 비워가는 연습을 저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비울수록 그만큼 세상이 따뜻해질까요. 부디 미디어에서도 이런 훌륭한 사연을 많이 보도해서 많은 사람이 선한 기운을 느끼고 이웃에 전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조익환 전북 군산시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시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스피커



담요



텀블러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김응수
×
사랑의열매

올 겨울,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나눔온도를 높여주세요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홈페이지 www.chest.or.kr



